

<2010년 8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>

1. 사람들은 더 좋고 이상적인 것을 찾고 얻으려는 희망을 잊고 살고 있다.
2. 더 좋은 것을 얻으려는 생각을 해야 더 좋은 것, 더 좋은 환경을 얻을 수 있다.
3. 때가 되어 구시대에서 바라던 새로운 시대가 왔어도 이에 눈을 뜨지 못하면 한 땅, 한 시대에 살아도 구시대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다.
4. 사람들은 모두 한 땅, 한 시대에 섞여 살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 휩쓸려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.
5. 새로운 시대에 사는 자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보고, 듣고, 자극도 받고, 생각도 달리하고,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.
6. 월명동에 가더라도 온종일 푸른 잔디밭에서만 앉아 있다가 오면 한 곳만 보고 깨닫고 오게 된다. 그러나 돌 조경도 가 보고, 소나무 산도가 보고, 왕바위도 가 보고, 산책로도 가 보고, 수영도 해 보며 여러 곳을 가 보면 그만큼 여러 가지를 보고 깨닫고 오게 된다. 똑같이 월명동에 가도 어떤 사람은 한두 곳만 가 보고 조금 알고 오고, 어떤 사람은 7~8 곳을 가 보고 그만큼 알고 온다. 이와 같이 섭리사 안에서도 하루를 살면서 5~6배 부지런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, 하나만 하고 마는 사람도 있다.
7. 부지런한 자는 생각과 사고가 다르기에 부지런하며, 그에 따라 얻는다.